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0호 (2024.10.25)

##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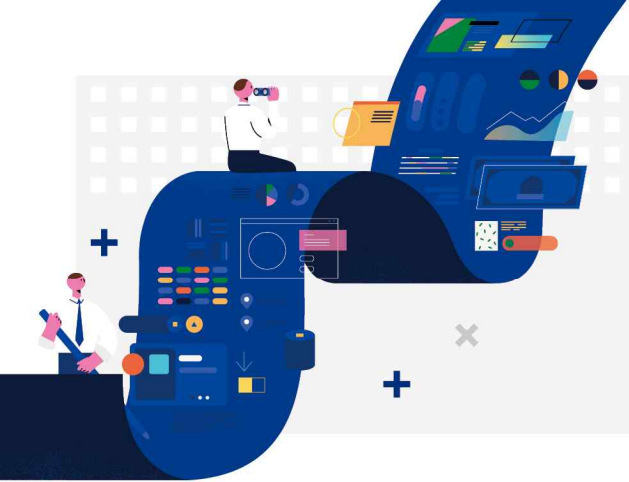
(산업) 인천시 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시사점

##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0호 (2024.10.25)

## Cotents

### I. 이 슈

(산업) 인천시 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시사점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제도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편의성 증대 ..... 11

(노동)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 11

(교육) 정부, 202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12

(산업) 정부, '25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확보에 8.8조 원 지원 추진 ... 12

(기술) 산업부, AI 기반의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AI+R&DI 추진전략' 발표 13

(주거)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 13

(산업) 정부, 향후 3년의 정책방향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심의·의결 14

(보건) 오는 11월 11일부터 양일간 인천서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 14

## 연구진

<b>최태림</b>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b>민규량</b>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b>상민경</b>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b>김종원</b>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산업
인천시 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시사점<sup>1)</sup>

#인천시 #제조·수출기업 #RE10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태조사

-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산업계 및 주요국 정부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인천시 역시 관내 기업이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RE100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
  - 기후 위기의 심각성 증대에 따라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은 2050년까지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바이오·수력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을 시작
    - 2024년 10월 기준 구글, 샤넬, 존슨앤존슨, 이베이 등 433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K텔레콤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 36개 대기업이 RE100에 동참
    - RE100은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시작하였으나, 글로벌 사회의 탄소중립 및 ESG 관련 공시제도 변화와 맞물려 점차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는 중
  - EU,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부 역시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령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수출 중심 구조인 국내 산업계 및 기업의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고려)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내연 교통수단 규제 △에너지 효율화 △산업활동 탄소 배출량 감축 △청정에너지 사용 등의 정책(제도)은 국내 제조·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인천시의 경우 ①제조업 기반 ②높은 수출 비중 ③반도체·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급망 연관성 등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관내 기업에 대한 RE100 달성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기업 동향 정보의 부족으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 마련에 한계가 존재
    - 이에 본 고에서는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RE100 관련 인식 수준 및 대응 현황 실태조사'와 관련 기업 인터뷰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천시의 기업 RE100 대응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인천시의 RE100 지원 정책 마련에 필요한 산업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 소재 제조·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관련 인식 및 대응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sup>2)</sup>
  - 실태조사 모집단은 △관내 100인 이상 제조기업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산단 에너지자급자축사업 참여기업 △인천모빌리티연합 회원사 등을 포함한 관내 제조·수출 기업 중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구성
  - 실태조사는 기업 기본정보 이외에 ①RE100 인식 및 대응 ②RE100 외부 요구 현황 ③RE100 이행 방법

1) 본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RE100 달성,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개념을 포괄하여 'RE100'으로 통칭.

2) 모집단 2,055개사를 대상으로 약 5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여 19.5%의 응답률(400개사)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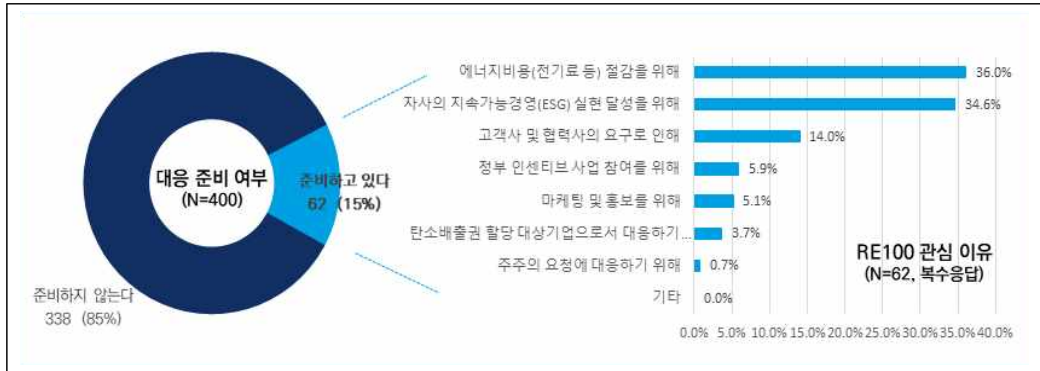
④재생에너지 발전수단 설치 의견 ⑤RE100 관련 정책 수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 설문 항목으로는 △기업의 RE100 준비 여부 및 정도 △외부 요구 경험 여부 및 요구사항 △향후 관련 요구 확대 전망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 △RE100 이행수단 활용 현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유 여부 △발전설비 설치 및 부지 임대 의향 △시 정책사업 참여 의향 △필요 지원사업 분야 등이 포함
- 응답 기업의 62.3%는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0개 사의 평균 매출액은 약 32,167백만 원 수준
- 응답 기업은 주로 △남동구(48.5%) △서구(24.5%) △부평구(9.0%) 등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사업장 건물을 자가소유(85.5%)한 것으로 조사

[표 1] RE100 대응 실태조사 응답 기업 특성

구분		기업 수(개사)	비율(%)
전체		400	100.0
기업규모	중견기업	62	15.5
	중기업	168	42.0
	소기업	170	42.5
수출비중	없음	157	39.3
	20% 미만	149	37.3
	20~40% 미만	43	10.8
	40~60% 미만	20	5.0
	60~80% 미만	11	2.8
	80% 이상	20	5.0

- 인천시 소재 기업은 산업 부문의 RE100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부족한 상황
  -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약 59.0%가 RE100을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약 15.5%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현재 RE100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
    -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 및 중기업 구간에서는 약 17.7%의 기업이 현재 RE100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소기업 구간에서는 약 12.3%만이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준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 업종별로는 △플라스틱(28.1%) △자동차·자동차부품(25.4%) △전기전자(16.5%) 순으로 나타나 제품의 생산·활용·폐기에 있어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가 이외의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
  - RE100 관련 정보는 주로 각 기업이 직접 취득(49.0%)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설명회·관련기관 안내 등을 통한 정보습득률이 낮은 편
    - RE100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중 약 58.4%가 RE100 관련 정보의 취득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관내 기업 중 33.3%는 RE100 관련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그림 1] 인천시 기업의 RE100 대응 준비 여부 및 관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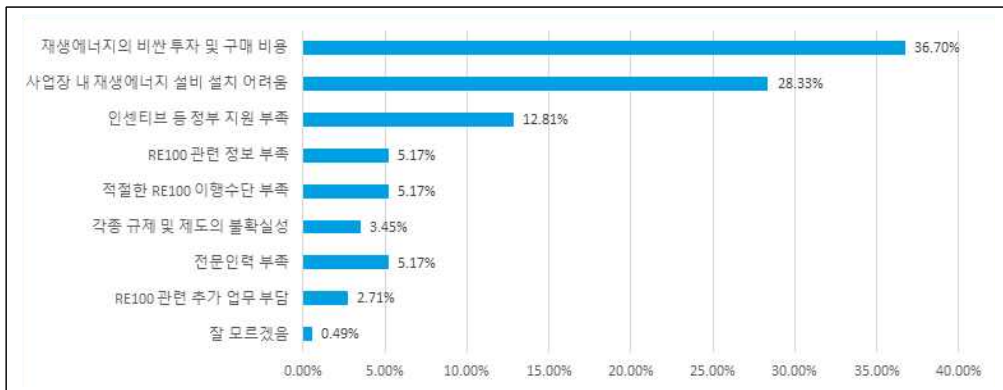
- 관내 기업 중 외부 거래처 등으로부터 RE100 관련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약 4.0%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향후 RE100 관련한 외부의 요구 압박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규모 구간별 현재 RE100을 요구받는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과 중기업이 4.8%, 소기업이 2.9%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
    - RE100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소비량 관련 정보 △제품 온실가스 배출 LCA 자료 △RE100 이행 및 관련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행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내년 이후이거나 아직 정해진 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
  - 향후 RE100 관련 외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91.9%, 중기업 47.6%, 소기업 51.2%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RE100 관련 글로벌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54.0%로 조사되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RE100 관련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업의 매출액 대비 해외수출 비중별 구분에 따르면 향후 RE100 관련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해외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RE100 요구를 더욱 가깝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
  - 아직 RE100 관련 요구를 받지 않는 기업은 향후 관련 요구가 있을 시 대체로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27.9%)', '다른 거래처 물색(2.9%)' 등이 일부 기업의 미온적인 입장을 대변

[표 2] RE100 관련 외부 요구 경험

(단위 : 개, %)

구분		표본수	있음	현재 없고 향후 없을 전망	현재 없고 향후 있을 전망
전체		400	16 (4.0)	160 (40.0)	224 (56.0)
기업 규모	중견기업	62	3 (4.8)	2 (3.2)	57 (91.0)
	중기업	168	8 (4.8)	80 (47.6)	80 (47.6)
	소기업	170	5 (2.9)	78 (45.9)	87 (51.2)
수출 비중	없음	157	5 (3.2)	72 (45.9)	80 (51.0)
	20% 미만	149	4 (2.7)	60 (40.3)	85 (57.0)
	20~40% 미만	43	3 (7.0)	13 (30.2)	27 (62.8)
	40~60% 미만	20	3 (15.0)	3 (15.0)	14 (70.0)
	60~80% 미만	11	1 (9.1)	2 (18.2)	8 (72.7)
	80% 이상	20	-	10 (50.0)	10 (50.0)

- 현재 RE100을 이행하고 있거나 향후 이행과 관련한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자가발전 △PPA △녹색프리미엄 등 1~2가지의 RE100 이행수단<sup>3)</sup>을 융합하여 활용할 계획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현재 재생에너지를 활용 중인 기업은 약 14.0%로 미미한 수준이나, 43.0%가 향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고 답하여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재생에너지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
    - 기업규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계획과 관련한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생에너지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계획 중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 RE100 이행에 관해서는 대체로 1~2가지 이행수단을 동시에 활용(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가발전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응답기업 중 약 51.0%가 RE100 이행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응답하였는데, △자가발전(35.0%) △REC 구매(13.3%) △제3자 PPA(11.0%) △녹색프리미엄(4.8%) △직접 PPA(4.5%) △지분투자(2.5%) 순
    - 이행수단을 활용 중인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 대응 가능성 △수단 활용의 용이성 등의 사유로 현재의 이행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이행수단을 활용 중이지 않은 기업 역시 향후 이행에 있어 비교적 도입이 간편한 ‘자가발전’ 및 ‘REC 구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한편, △고가의 재생에너지 투자·사용 비용(36.7%)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어려움(28.3%)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 부족(12.8%) 등이 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E100 실현의 애로사항 1순위로 선정



\* 주 : 선호에 대해 응답한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으로, 주요 장애요인 1·2순위 합산 값을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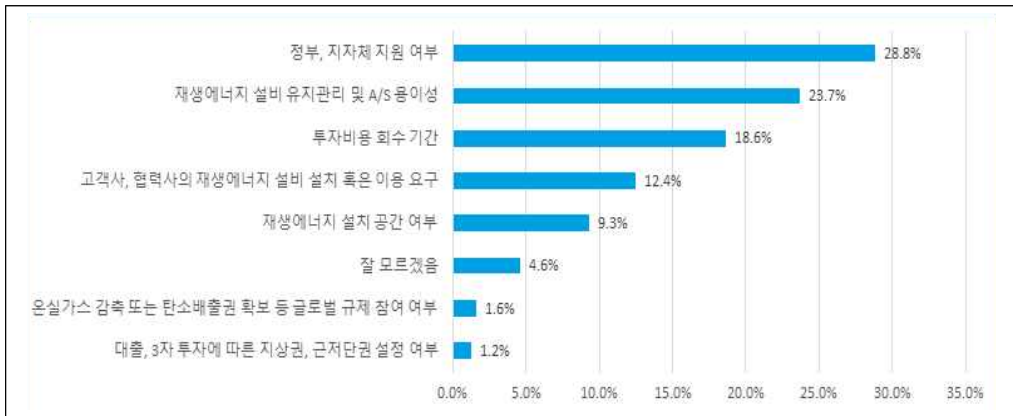
[그림 3] RE100 이행의 장애요인

- 인천시 관내 소재 기업은 자체 발전시설 구축 또는 부지 임차를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긍정적인 편이나, 이러한 의사가 실제 설비 구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전설비 설치의 공간 제약 및 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대비 효과성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3) 국내 RE100 이행수단에는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구매, 직접 PPA, 제3자 PPA, 자가발전, 녹색프리미엄, 지분투자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이행수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향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 56.3%의 기업이 '설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설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부 지원 여부(28.8%) △유지·관리 용이성(23.7%) △투자 비용 회수(18.6%) △외부 요구 대응(12.4%) 순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지붕 및 주차장 등 사업장 내 부지를 발전사업자에 임차할 의향이 있는 기업 역시 35.3%<sup>4)</sup>로 나타나, 인천시 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조사
- 다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중립 기업 역시 약 31.8% 수준에 달하여 해당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설치 유인 마련이 필요
- 인천시 소재 기업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로 태양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는 △투자 대비 낮은 효과성(42.9%) △설치 공간 부족(42.9%)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선정
- 한편 관내 일부 기업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부품, 설비당 에너지 생산량,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적어 발전설비 사업자를 믿고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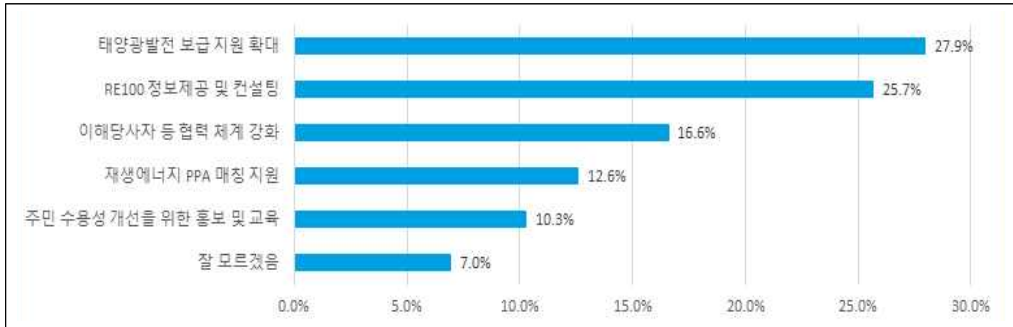


\* 주 : 주요 발전설치 결정요인 1~2순위 합산 값을 이용하여 작성

[그림 5]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결정 판단 기준

-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은 약 45.8% 수준으로, 대체로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지자체의 RE100 이행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확대(27.9%) △RE100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25.7%) △협력체계 강화(16.6%) 순
-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투자 및 금융지원(40.8%) △설치 관련 인허가 지원(25.2%) △규제개선(12.9%) △설치부지 발굴 및 공급(12.6%) 순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도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4) 일부 자가 부지가 아닌 기업을 포함하여 부지 임차에 대해 '관계없음' 또는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기업이 약 48.5%로, 자가 부지 소유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부지 임차에 긍정적인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주 : 지원 정책 선호도 1·2순위 합산 값을 이용하여 작성

[그림 7] 지자체 RE100 지원사업 수요

- 인천시는 'RE100 산업기반 조성사업'과 '인천 탄소중립프로젝트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
  - 시는 인천도시공사를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30년까지 총 3.7GW 규모에 달하는 4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50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자-수요자 간 전력구매계약 매칭을 지원할 계획
    - 또한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현대건설 등 실무협의체 협약기관과 함께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인프라 구축사업 △저탄소·친환경 제조전환 기업 금융지원사업 △탄소저감 시설도입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
  - 다만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①교육·컨설팅 운영 ②발전설비 설치 관련 금융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③신뢰성 있는 재생에너지 기업 발굴 ④장기 전력구매계약 지원 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
    - RE100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이행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RE100 정의 및 동향 △산업 트렌드 변화의 기업활동 영향 △RE100 이행방법 △정부·지자체 운영 지원사업 등 기업의 RE100 준비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가 요구
    -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행수단 이용 또는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및 용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 관련 담보·보증제약을 해소하고 발전설비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할 필요
    - 산업단지·집합건물 등에 위치한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의 지속성 문제 및 전력 사용량 변동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있어 1:1 계약인 PPA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증 등을 통해 장기·단체 PPA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과 관련한 정보비대칭 및 신뢰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적정가격 공시 △제품·설치공법·A/S 관련 인증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조·설치·유지보수 기업 발굴·육성 등을 추진할 필요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4년 9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월대비 14.6% 증가한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sup>5)</sup>
  - 9월 반도체 수출은 IT 기기 신규모델 출시 효과 등 견조한 수요의 지속을 바탕으로 두자릿수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37.1% 증가
    - △신규 스마트폰 출시 △AI 서버 신규 투자 △일반 서버 교체 수요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메모리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
    - 다만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은 수요 부진 및 재활용 칩 사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각각 전월대비 17.1%, 11.4% 감소한 1.70달러, 4.34달러 수준으로 형성
  - 반도체 부문 수출실적은 202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134.2억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수출 최대 실적을 재경신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구분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99.5 (66.7%)	116.7 (35.7%)	99.6 (56.1%)	113.8 (54.5%)	134.2 (50.9%)	112.0 (50.4%)	118.8 (38.8)	136.2 (37.1)
D램 고정가격	1.80	1.80	2.10	2.10	2.10	2.10	2.05	1.70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34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4.10.01.)', TEHELEC 등 참고 및 재구성

- **(전국)** 우리나라의 2024년 8월 반도체 생산 및 9월 반도체 수출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전반적인 증가세는 다소 약화
  - **(생산지수)** 2024년 8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6.8%,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한 134.1로, 2024년 들어 생산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120~140 사이 박스권에 머물며 생산 경기 호조가 지속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 역시 전월대비 6.7%, 전년동월대비 10.3% 상승한 161.8로, IT 기기와

5)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9월 수출입 동향(2024.10.01.)' 및 THEELEC(24.09.30) 참고.

관련한 수요 증대에 따라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생산 호조가 지속

- 2024년 들어 반도체 관련 부문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비 두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출하지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
- **(품목별 수출액)**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7.7%, 전년동월대비 37.1% 증가한 약 1,098.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유지
- 모든 부문에서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부문의 수출액이 각각 전월대비 14.8%, 0.6% 증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상승세
- 한편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디바이스 부문은 각각 전월대비 3.2%, 2.8% 감소하며, 2024년 들어 회복세가 지속되는 상황

○ **(인천)** 2024년 8월 인천지역의 반도체 관련 생산 경기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9월 기준 반도체 수출 경기는 3개월째 보합 수준을 유지

- **(생산지수)** 2024년 8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8% 감소,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143.5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세가 소폭 둔화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9월 인천시 반도체 품목별 수출액 합계는 전월대비 3.7% 감소, 전년동월대비 26.3% 증가한 약 150.1천만 달러로, 지난 7월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
- 인천시 반도체 부문별 수출액은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전국 추세와 역행
-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39.3%, 0.2% 증가한 약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42.5%, 4.8% 감소하는 등 지난 4월 이후 전월대비 감소세 지속
- 시스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하는 약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전월대비 크게 감소하며 회복세가 꺾인 상황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4.05	'24.6	'24.07 (p)	'24.08 (p)	'23.08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27.1	139.5	125.6	134.1	124.2	6.8	8.0
	반도체 제조업	153.3	173.7	151.7	161.8	146.7	6.7	10.3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39.1	133.5	149.2	143.5	139.5	-3.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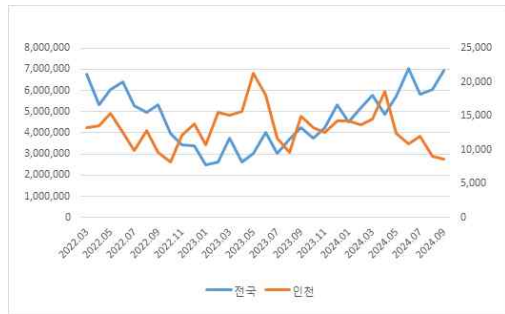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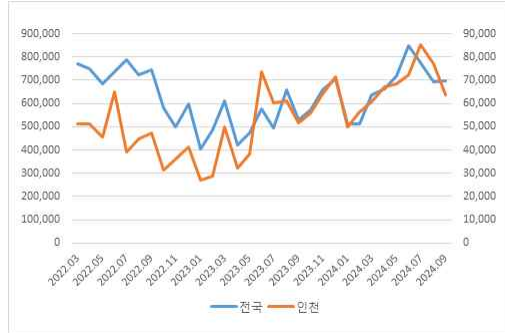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4.09)

## [ 부록 ]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9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8,661	14.6	200,502	22.6	91,841	22,979	37.1	20,412	20.3	-2,567
자동차	14,859	-6.2	73,460	5.7	58,601	716	-35.1	6,881	2.7	6,165
기계장비	58,833	23.9	66,314	2.3	7,481	5,814	52.6	4,044	-14.5	-1,771
바이오-의약	9,178	-11.9	6,870	27.2	-2,308	736	-56.2	4,814	37.9	4,078
바이오-화장품	1,701	4.6	8,918	11.9	7,217	27	-37.5	1,728	-3.8	1,70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 경제

## 제도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폰 발급 편의성 증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폰 발급이 편리해질 예정
  - 아이폰은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아이폰 발급기관에 아동의 아이폰을 신청·동의한 후 법정대리인과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 가능
    - 그간에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만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한 비대면 아이폰 발급이 가능하여 세대주가 아닐 경우 아이폰 신청을 위해 증명서류를 지참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존재
  - 이에 방통위는 지난 '23년 2월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아이폰 발급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
  - 금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자녀의 온라인 아이폰 발급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폰 발급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노동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행
  - 금번 개정령이 통과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증액되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여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할 계획
    - 이에 따라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달 상한액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
    - 또한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서면으로 허용 표시를 하도록 개선
  - 한편 직원의 육아기 근로단축 및 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교육부

- 지난 10월 15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
  - 금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4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데, 정부는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기상 등 자연재해 대비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등을 통해 52만여 수험생의 원활한 수능 응시를 지원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교통 소통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아침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관공서·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 조정(오전 10시 이후) 협조 요청</li> <li>•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 수도권 지하철 증차 및 경찰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 운영 등 이동 편의 지원</li> <li>•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 통제</li> </ul>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교시 외국어 듣기평가 진행 시간(오후 1시 10분~35분)간 소음발생 방지를 위해 항공기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 조정 및 포사격·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 중단</li> <li>• 듣기평가 이외 시간 시험장 주변 버스·열차 등 서행, 주변 행사장 및 공사장의 생활소음 자제 당부</li> </ul>
기상 등 자연재해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8일(금)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한 시험장 날씨 정보 확인 가능</li> <li>• 10월 14일(월)~11월 1일(금)까지 전체 시험장 대상 안전 점검 실시</li> </ul>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문답지 보완관리 경비체계 마련</li> <li>• 시험지구예의 교육부 중앙협력관 파견을 통한 문답지 관리 지원</li> </ul>

#정부부처합동

-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반도체산업 관련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비용분담에 8.8조 원을 지원할 계획
  - 금융 부문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최대 1.4%p의 금리우대)'을 통해 '25년까지 총 4.2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 출자를 통해 '25년까지 총 4,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
    - 금융부문의 경우 '27년까지 최대 2조 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9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
  - 또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관련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금융·R&D·인력양성·사업화 등에 '25년 총 1.7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반도체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예정
  - 한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인프라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2.4조 원 규모의 비용에 대해 국가 및 공공부문에서 부담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①AI 적용 기술개발 확산(AI+기술개발) ②전세계 기술·인재의 AI 기반 탐색·연결(AI+개방혁신) ③정부 R&D 전과정에 AI 전면적용(AI+행정)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 「AI+R&DI(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

\* 'AI+R&DI'는 AI를 산업현장의 기술개발과 혁신 과정에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혁신방식

- 'AI+기술개발' 부문에서는 △100대 프로젝트 선정 지원('25~'30) △소재플랫폼 물질DB 규모 확대 △4대 핵심기술 확보 △500개 AI 자율실험실 단계적 도입('25~'30) △AI 융합 R&D 지원 트랙 신설 △'30년까지 2만 명 대상 AI 전문교육 실시 등을 추진
-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연구설계 및 수행에 AI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10년 내 산업부 R&D 신규투자는 AI 융합 R&D에 100% 투입을 목표
- 'AI+개방혁신' 부문에서는 '28년까지 총 161억 원을 투자해 전세계 기술·인재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대화형 Tech-GPT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외 전문가(기업)와의 자유로운 탐색·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AI+행정' 부문에서는 정부R&D 참여기업의 연구물입을 위한 AI Assistant를 도입하는 한편, R&D 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등 프로세스 전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참여기업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의 시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공동 발표

- 금번 지원방안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가 가능 숙박시설로 도입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오용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구분	주요 내용
(신규) 주거용 원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연내 「건축법」 개정 발의) → 건설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li> </ul>
(기존)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조례 개정 독려</li> <li>• 안전 및 주거환경 보호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의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지원</li> </ul>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말까지 지자체별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방향 안내, 변경·신고 컨설팅 등 수행</li> <li>•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용도변경 신청 소유자는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li> </u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인공지능의 필수 기반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향후 3개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25~'27)」을 발표
  - 동 기본계획은 AI시대에 맞게 국내 클라우드 기술 및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

구분	주요 내용
도입 전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과제) 디지털교과서, 망분리 완화, 범정부 통합콜센터, SMART 상점 전환 등 교육·금융·국방·소통·소상공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AI+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li> <li>• (공공제도개편) 공공부문 기관평가 시 클라우드 도입 포함, 정보시스템 신규·재구축 시 민간 클라우드/SaaS 이용 우선 검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프로세스 개선</li> </ul>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AI 반도체,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전·후방 핵심산업 집중지원</li> <li>• 정부 지원정책 방향성을 △유망기업 중심 △집중지원 △글로벌 진출 등으로 재설계</li> </ul>
생태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촉진 및 민간주도 생태계 전환을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li> <li>• △AI 혁신펀드·SaaS 전환지원센터 구축 △클라우드 인력양성 강화 추진</li> <l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본격화 및 협력기반 CSAP 개선 등 경쟁과 협력의 균형 추구</li> </ul>

#보건복지부

- 오는 11월 11일(월) 및 12일(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이 진행될 예정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은 각국 보건장·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등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가 모여 백신·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금번 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개최
    - 행사에서는 3개 세션을 통해 ①코로나19 이후 혁신적 연구개발 ②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③바이오 역량 강화 관련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
    - 또한 행사기간 중 아시아개발은행,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라이트재단 등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국제기구 등과 국내 바이오 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운영
  - 동 행사는 세계 바이오 서밋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신청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유튜브 채널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

## 참고 자료

- The Climate Group, [www.there100.org](http://www.there100.org).
- The Climate Group,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2024.03.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4호」, 2024.07.19.
- 인천연구원, 「RE100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 Issue Brief no.10, 2023.09.18.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THEELEC, “9월 범용 D램·낸드 고정거래가 10% 이상 폭락”, 2024.09.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고용노동부, 2024.10.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200m 전방 차량출입 통제”, 교육부, 2024.10.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000억 원 투입…생태계 경쟁력 키운다”, 정부부처합동, 2024.10.16.
- 관계부처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24.10.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연구개발 프로젝트 600개…2030년까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0.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 2024.10.17.
-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2024.10.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내 클라우드시장 연 10조 원 시대 연다…3개년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0.18.
- 관계부처합동,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27))」, 2024.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바이오 서밋, 다음 달 11~12일 인천서 개최”, 보건복지부, 2024.10.21.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0호(2024.10.25)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10월 25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